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9권 제5호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2013 Vol. 9. No. 5. pp. 357-379

숲유치원에서의 유아의 경험 세계*

전주영** 손원경***

Childrens' Experience in the Forest Kindergarten

Jeon, Ju young Son, Won Kyoung

본 연구는 숲유치원에서의 유아의 경험 세계를 살펴보고 그 안에 내재된 유아교육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이를 통해 앞으로 숲유치원이 나아가야 할 긍정적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2년 3월 넷째 주부터 2012년 11월 셋째 주까지 참여관찰, 면담, 문서 수집, 사진과 비디오 촬영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는 부산시 H유치원 만5세반 24명의 유아와 유아들의 어머니 7인, 원장과 담당교사 2인, 숲해설가 2인이다. 연구자는 본 연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본 연구의 현장인 숲유치원의 상황적인 맥락을 고려하며 유아들을 관찰하였다. 연구결과 숲유치원에서의 유아들의 경험 세계를 본성의 장, 심미의 장, 참 놀이의 장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숲유치원이 유아들에게 타고난 본성을 드러내어 아름다움을 느끼고 참 놀이에 깊이 몰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제어 : 숲유치원, 유아, 경험 세계

* 이 논문은 2013년 신라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이 논문은 2013년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임.
** 제 1저자: 신라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
*** 교신저자: 신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wkson@silla.ac.kr)

Ⅰ. 서 론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다. 하지만 무한 경쟁으로 치닫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자연은 어느 덧 일상의 삶과 분리된 채 시간을 내서 찾아가야 하는 특별한 곳이 되었다. 이처럼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산업화로 인해 우리는 생활의 편리함을 얻은 대신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할 존재로서의 역할은 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인들이 자연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면서 아이들 역시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TV 시청,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보내고 있다. 유아를 담당하는 교육기관에서도 실외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놀이터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고, 놀이를 실시하는 경우라도 자연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서는 부족하다(손원경, 전주영, 2011). 이러한 현실은 미국과 북유럽에서 1920년대 이후 식물과 나무가 있는 자연친화적 환경으로 놀이터를 구성해야함을 강조한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주소영, 2009).

아이들은 근본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궁금해 하며, 자신의 온 몸을 이용해 세상을 배우려고 하는 존재로서 이러한 어린 시기에 필요한 가장 좋은 교육의 장은 자연이다(김은숙, 2011; 홍은주, 2003; 홍혜란, 2001). 자연은 단순히 뛰어 노는 공간을 넘어서 인간의 타고난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고, 희로애락을 반사하고 표현하는 대상이며,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등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부각된다(조형숙, 김현주, 박은주, 김민정, 2005).

한편 유아는 인간으로서 타고난 생리학적 발달 순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계속되는 경험의 과정을 통해 삶을 이루어 나가는 존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유아들을 기르고 삶의 발전을 인도하는 생활 속 경험들은 삶을 지탱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나성식, 2004). Dewey는 경험이란 개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맥락 안에서 자아와 주변 세계가 독특하게 만나는 특정한 시·공간적 사건이며 이때 경험되는 질적인 차이와 다양성이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양은주, 2002). 또한 Malaguzzi(1996)는 유아가 아이디어의 조정, 추상과 같은 지적 행위를 통해 매일의 생활 경험에서 의미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보고 모든 학습의 기초를 유아의 경험을 통한 의미 구성에 두었다. 따라서 성인이 유아에게 제공하는 허용 가능성의 범위가 넓을수록 유아가 강하게 동기 유발되고 더욱 풍부한 경험을 하게 되므로 이를 위한 환경적 자원을 확장시켜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나성식, 2004).

이에 최근 우리 사회에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발달을 하도록 돕는 자연 교육환경이자, 감성과 창의성을 중요시하며 전인적 성장 발달을 이루고자하는 녹색교육 환경으로 숲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다(강원도민일보, 2012. 1. 12). 숲은 단지 나무로 덮인 공간만 가리키지 않고 좀 더 넓은 의미의 자연적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의 속성이 그대로 담겨 있는 곳이다(이명환, 2009). 유아에게 있어 이러한 숲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숲유치원이다. 숲유치원은 자연의 속성이 그대로 있는 숲이라는 공간 속에서 유아들이 생활하고 놀이하는 과정을 통해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 곳이다(이명환, 2008).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기관인 산림청이 유아 대상 녹색교육을 목적으로 유아 숲체험원, 즉 '숲유치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숲유치원은 현행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시설은 아니지만, 현재는 숲을 활용해 자연과 교감하면서 자연체험활동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치원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중앙일보, 2011. 11. 14). 산림청은 2012년 7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유아숲체험원이란 용어를 법적으로 확보하였고 보다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인 숲유치원으로 통칭하여 그 수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는 국가적 측면에서는 숲의 활용도를 다양화시킬 수 있고 새로운 녹색교육 패턴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된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숲유치원의 꾸준한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숲유치원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성 및 한국 실정에 맞는 숲유치원의 정착을 위해 이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숲유치원에 대한 요구 증대 및 양적 확대의 경향 아래 숲유치원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어 왔다. 현재까지 숲유치원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에는 숲유치원에 대한 유아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및 요구를 조사한 연구(송주은, 2011), 독일을 비롯한 해외의 숲유치원에 관한 연구(이명환, 2008, 2009; 한유미, 2010), 국내 숲유치원 교육의 추진 방향에 관한 연구(장희정, 2009), 국내 숲유치원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임재택, 이소영, 김은주, 2012), 숲유치원 운영사례에 관한 연구(강명희, 2012; 이성자, 2010)가 있다. 이 밖에 숲에서의 체험 활동이 유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핀 연구(류덕연, 2011; 오소영, 2010; 최정애, 2009), 유아들의 숲 산책과 놀이를 살핀 연구(이인원, 최기영, 2007), 숲에 대한 아이들의 기억에 관한 질적 연구(조규성, 2010)가 있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숲유치원 관련연구가 해외 숲유치원 운영 실태와 사례 및 국내의 숲유치원 운영현황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숲 체험 활동을 살핀 연구에서는 양적연구방법으로 특정 영역에 있어서 숲 체험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와 달리 질적 접근을 한 경우에도 그 대상이 초등학생 이상이거나 숲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짧은 숲

산책 활동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증가 추세에 있는 숲유치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불어 앞으로 숲유치원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숲유치원의 주인공인 유아들의 경험 세계 안으로 들어가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숲유치원에서 자연을 만나는 유아들의 경험 세계를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살펴보고, 그 심층적 의미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을 통해 유아를 위한 숲유치원의 교육적 가치를 살펴봄과 동시에 앞으로 숲유치원이 나아가야 할 긍정적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필요성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숲유치원에서의 유아의 경험 세계는 어떠하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1. 연구현장

연구자는 본 연구의 현장으로 연구 참여 유아들이 생활하는 숲유치원을 살펴보았다. 먼저 주요 연구현장인 숲유치원 선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사전에 고려하였다.

첫째, 현재 국내 숲유치원으로서의 대표성을 보여주는 현장으로 최근 양적으로 확대, 증가 추세에 있는 산림청 관리하의 숲유치원을 연구 현장으로 고려하였다. 둘째, 현장의 인적, 물리적 환경이 숲유치원 운영에 부합하고 현장의 분위기가 연구에 개방적이며 호의적인 곳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 관할 숲유치원으로서 다수의 유아교육기관에서 모집 공고를 통해 유아들을 모집하여 숲반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지역 A수목원 숲유치원을 연구현장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A수목원 선정 후 연구자는 수목원으로부터 A수목원이 공개모집한 숲반에 응모하여 선정된 유아교육기관을 안내 받아 각 기관별로 전화 및 방문 면담을 시도해 본 연구의 취지와 진행일정을 밝히는 과정을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 호의를 보이며 연구취지를 이해하고 연구에 동의한 H유치원을 연구현장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H유치원은 A수목원 숲유치원 현장과는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H유치원에는 교사 20명과 원장과 조리사, 사무 관리원, 운전기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방과 후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다.

A수목원 숲유치원에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일과운영은 주 2회 오전 9시 40

분경에 숲유치원으로 등원하여 오후 2시 20분까지 4시간 이상을 숲에서 머무르게 된다. 숲유치원에 도착해서 하원할 때까지는 점심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일과 시간의 구분 없이 자유 활동으로 진행된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본 연구의 현장으로 선정된 A수목원의 숲해설가와 H유치원 초롱반의 구성원들이다. 주요 관찰대상은 A수목원으로 1년 동안 주 2회씩 등원한 H유치원의 초롱반 만5세 유아 24명이며 이 유아들과 함께 숲유치원에 1년간 참여한 유치원 원장 및 담당교사 2인과 수목원측에서 파견한 숲해설가 2인을 관찰 및 심층면담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료 수집과정에서 부모참관 수업을 계기로 모이게 된 7명의 유아 어머니들도 면담대상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참여자 각각의 배경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H유치원 초롱반 유아의 구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 유아 구성: 초롱반, 만5세

이름(가명)	성별	생년월일	이름(가명)	성별	생년월일
최준호	남	2007. 3. 17	이재영	남	2007. 7. 11
김세연	여	2007. 7. 16	김연서	여	2007. 11. 9
김동준	남	2007. 3. 12	박동건	남	2007. 3. 2
박병민	남	2007. 2. 28	이상원	남	2007. 4. 17
이형준	남	2007. 6. 18	김근호	남	2007. 5. 12
김서우	여	2007. 5. 22	최진영	여	2007. 6. 9
조수빈	여	2007. 10.12	김우성	남	2007. 7. 22
박은수	여	2007. 6. 25	채지연	여	2007. 9. 19
서우빈	남	2007. 9. 7	김은혜	여	2007. 7. 16
조민서	여	2007. 3. 18	서지윤	여	2007. 8. 17
박민지	여	2007. 6. 14	마은진	여	2007. 4. 4
박현준	남	2007. 8. 7	이진서	남	2007. 9. 13

둘째,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면담 및 자료수집에 참여한 원장과 유아반 교사, 숲해설가의 배경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원장, 교사, 숲해설가 배경

자격사항		연령	경력	학력	이름(가명)
어린이집 교직원	원장	51	14년	대학원졸	김선화
	교사	33	7년	전문대졸	양혜경
	교사	23	1년	전문대졸	석세정
숲해설가		43	2년	대졸	김경신
		46	2년	대졸	조민숙

끝으로 숲유치원 부모참관수업에 참여한 후 본 연구에 관한 부모 인터뷰에 동의한 초롱반 유아 어머니들의 인적사항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인터뷰 참여 어머니

이름(가명)	연령	학력	직업	자녀(가명)
배은주	38	대졸	전업주부	박민지
김선영	30	전문대졸	전업주부	김우성
박선희	34	전문대졸	전업주부	서지윤
석경화	35	대졸	학습지교사	조수빈
박미화	38	대졸	전업주부	박현준
김화영	32	전문대졸	정수기관리사	김동준
최선주	40	대졸	학원운영	박은수

3.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2년 3월 넷째 주부터 2012년 11월 셋째 주까지 참여관찰, 면담, 관련 문서 수집, 사진과 비디오 촬영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A수목원 숲유치원에서 이루어진 참여관찰은 첫 관찰이 시작된 3월 넷째 주부터 11월 셋째 주까지 약 9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유치원 행사나 여름방학으로 인해 숲으로 등원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 2회,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20분까지 본 연구자와 교육학 석사학위자인 연구보조자가 카메라와 캠코더 및 녹음기를 휴대하고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연구 초반기에는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연구 현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입장에서 전체 현장을 함께 움직이며 자료를 모으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역할을 좀 더 세밀히 분담하여 특정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새로운 모습이 보이는 장면에 각각 초점을 맞추어 자료를 수집해 나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빈번히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에피소드들과 새롭게 발견되는 장면들을 놓치지 않고 수집, 정리해 나갈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면담은 정기적인 면담과 비정기적인 면담으로 나뉘어 졌다. 원장 및 교사와의 정기적 면담은 2개월에 한 번씩 총 4회에 걸쳐 교사의 일정을 고려한 시간 약속을 통해 이루어졌다. 교사의 경우에는 H유치원 교사실에서 유아들이 하원한 오후 시간에 1회당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을 통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숲해설가와의 면담은 연구 과정을 통해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4월, 7월, 10월에 각 한 번씩 이루어졌다. 비정기적인 면담에는 연구자가 참여관찰 중에 교사 및 숲해설가와 나눈 현장 인터뷰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대개의 경우 유아들의 놀이나 활동 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모든 내용은 녹음되었다.

4. 자료 분석 및 타당화

본 연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위해 준거에 따른 분류와 조직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질적 연구자들이 제시한 분석방법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그 기본적인 자료 분석의 과정은 수집된 자료를 전사하고, 정리한 후 부호화하고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주제별로 범주화하는 과정에 따르는 방식으로(유혜령, 1998; Bogdan & Biklen, 2010; Spradley, 1988)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는 현장 관찰 기록지에 당일 관찰내용을 적고 그 때 그 때 떠오른 쟁점화 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함께 기록해 두었다. 둘째, 현장 관찰 기록은 관찰이 이루어진 당일에 전사하여 날짜별로 따로 정리 하였다. 면담자료는 녹음하거나 수기로 작성하고, 비디오 녹화는 에피소드 별로 정리하여 당일에 전사하여 날짜별로 따로 모아두었다. 셋째, 전사한 자료는 반복하여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유사한 사례의 핵심어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추출된 핵심어 중 유사한 것들을 묶어 몇 개의 핵심 주제로 범주화하고 다시 사례를 면밀히 재검토하는 단계를 반복하며 제목을 붙여 나가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본 연구자는 자료수집과정 동안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관련 문서 수집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 자료수집은 진행함으로써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Merriam, 1994)인 자료의 삼각측정을 적용하였다. 둘째, 연구 현장을 함께 한 담당 유아교사 및 숲해설가와 처음부터 관찰에 도움을 주고 전체내용을 관조한 보조적 참여자로서 원장의 구성원 점검을 통해 연구자의 임의적 해석에 따른 위험을 조율하였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 자료의 의미 분석에 있어서 정확성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 대한 유아교육전문가와 연구 동료와의 계속적인 피드백 과정과 의견교환 기회를 가졌다. 넷째,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관계유지에 있어 참여 관찰자로서의 자세를 망각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Ⅲ. 숲유치원에서의 유아의 경험 세계

본 연구는 숲유치원으로 찾아가 그 곳에서 생활하는 유아들의 경험을 면밀히 살펴 그 안에 내재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직접 숲유치원에서 생활하는 유아들의 경험 세계 안으로 들어가 그 경험의 의미들을 살피고 범주화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자는 숲유치원에서의 유아들의 경험 세계를 본성의 장, 심미의 장, 참 놀이의 장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일찍이 현상학을 연구한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의 세계를 언급하며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는 장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오희천, 2012). 이에 본 연구에 있어서의 장은 시·공간이 어우러진 가운데 유아들의 삶이 엮어지는 세계를 의미한다. 숲유치원에서의 유아들의 경험 세계는 다음의 세 가지의 장이 어우러진 생명의 세계로서 유아들에게 펼쳐지고 있었으며 그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본성의 장

연구자는 참여관찰 기간을 통해 숲유치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러한 과정 중에 뚜렷이 인식된 한 가지는 유아들이 숲에서 생활하는 모습에서 실내에서의 모습과는 구별되는 표현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본 연구자는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그러한 표현과 행동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잊고 있었던 그 무엇이라는 것에 생각이 다다르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에 관한 것이었다.

유아들은 숲에서 생활하는 모습 안에서 한 인간으로서 그들 안에 내재된 본성을 자연스럽게 발현하고 있었다. 인간 본성은 아이가 본래 갖고 있는 것과 그 혈통에 따라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구조의 결과로 지니게 된 것을 의미하며, 이 모든 것의 총합인 아이의 본성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고 여겨진다(Wilson, 2011).

숲에 오게 되면 아이들은 참 편안해 해요. 처음에 한 주 정도 적응기간이 지나고 나니, 아주자기들 집 마냥...(웃음) 제가 따로 지도하지 않아도 여기저기 뒤져보기도 하고 아예 한 곳에 자리 잡고 앉아 자기만의 놀이에 빠지기도 하고..... 처음엔 저도 정말 이렇게까지 아이들이 자연스레 편안하게 느끼고 놀 수 있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웃음). 그런데 사실 저도 숲에 오면 뭔가 모르게 편안해 지거든요...

<인터뷰 양교사, 5. 16>

초롱반 담당교사의 말처럼 유아들은 교사들의 예상과 달리 숲유치원 등원 초반부터 숲을 아주 편안한 공간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행동에도 거침이 없이 항상 그곳에서 지내왔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모습들이었다. 그러한 편안한 모습은 교사의 안내나 숲해설가의 지도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관찰 기간 동안 보여진 숲유치원에서의 유아들의 편안한 표정과 행동은 그들 내부로부터 저절로 솟아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숲에 가면 저절로 솟아나는 편안함의 근원은 무엇인가? 연구자는 관찰기간을 통해 살펴 본 유아들의 모습에서 숲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근원이 그들 안에 내재된 본성과 연결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아래와 같은 에피소드들을 통해 그 의미를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숲 산책을 막 끝마치고 아이들이 그늘진 풀밭에 모두 모여 앉아있다.)
교　사: 얘들아, 우리 숲 한 바퀴 돌았으니까, 물마시고 잠시 쉬었다가 노는 게 어때?
유아들: 예~ 좋아요...
연　서: 나는 여기에서 좀 누워서 쉬어야지(그늘진 풀밭위에 드러눕는다).
　　히, 좋~다... 완전..
　　민지야, 너도 누워봐봐.
민　지: (연서 옆에 그대로 눕는다)히 좋다... 정말 좋다... 그지?
　　(눈 감으며)난 눈도 감았다.
연　서: (눈감으며) 눈 감으면 우리 자고 있는 거다.. 히히..
민　지: 아, 편안하네...히히....

<참여관찰, 6. 13>

민지와 연서는 숲 산책을 끝내고 자신들만의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6월의 햇볕은 그늘이 아니라면 따가움을 느낄 만큼 강렬한 것이어서 깊게 나무 그늘이 진 그 숲 속 풀밭이 아이들

에겐 시원한 휴식처가 되고 있었다. 그 순간 민지와 연서에게 그늘진 그 풀밭은 온전히 자신들만의 편안한 쉼터가 된 것으로 여겨졌다. 깨끗한 실내에 길들여지고 깔끔하게 정돈된 침구에서 잠을 청하던 유아들이 이렇게 거침없이 풀밭에 누워 편안함을 느끼고 자신의 침대에 누운 듯 눈을 감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찍이 Wilson(2010)은 인간의 유전자에는 인간이 약 200만년 동안 정붙이고 살았던 본거지요 고향인 숲과 함께한 역사가 각인되어있다고 보고 바이오필리아를 언급하였다. 바이오필리아란 생명을 뜻하는 'BIO'와 사랑을 뜻하는 'PHILIA'의 합성어로 인간의 마음과 유전자 속에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과 회귀 본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에 따르면 아이들이 온전한 자연의 모습을 갖춘 숲에 도착하여 언제나 자주 접해온 것처럼 금방 익숙해지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인류 역사를 통해 이미 그들 안에 내재된 본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연구자를 비롯한 담당교사와 유아들이 숲에 다가가면 갈수록 더 편안함을 느끼고 심리적 안정을 얻는 모습은 이러한 가설을 보다 의미 있게 느끼게 했다. 연서와 민지의 모습 외에도 유아들이 틈만 나면 큰 나무 위로 오르거나 커다란 바위 위에서 태연히 잠을 청하는 모습은 그들이 숲이라는 공간에 애정을 갖고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하였다. 그들이 느끼는 저절로 솟아오르는 편안함은 바로 그들이 이미 숲과 연결된 하나였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숲유치원에서 초롱반 유아들과 함께하며 느낀 또 다른 한 가지는 유아들이 숲에서의 움직임이 과감하고 거침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실내에서도 활동성이 과하다 싶은 몇몇 아이들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었다. 실내에서 얌전했던 친구들도 숲에서의 모습은 거침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었다.

(계곡물이 흐르는 옆쪽 숲길에 돌무더기가 모여 있다.
그 안쪽에 진영이와 서우가 양말을 벗어 한쪽 돌 위에 올린다.)
교사: 어, 너희 왜 양말 벗었어?
진영: 어...어... 지난 번에 우리 물에 갔을때요... 양말 벗었잖아요?
그때 양말 벗으니까 시원 했어요... 그래서요...
서우: 우리 여기 돌 위에서 놀거거든요. 여기서는 맨발이 좋아요.
교사: 발 아프지 않을까? 선생님은 양말 신었으면 좋겠는데...
진영: 괜찮아요. 안 아파요. 얼마나 시원-한데요.. 히
서우: 맨발로 걸으니까 시원하네. 양말 안 신으면 기분이 더 좋아요. 히..

진영: 아..시원...하다...히히

<참여관찰, 6. 20>

병민: 야, 줄 서. 줄 서..
동건: 니도 줄 서라.
형준: 야 이제 시작이다... 엉덩이 뒤로 붙이고.. 이렇게 잘 봐봐.
병민: 야. 나도 할 수 있거든.
형준: 야~~~~~
(형준이가 먼저 커다란 바위에 등을 기대고 '야'하고 고함을 지르며 미끄러져 내려간다. 상원이가 바라보고 있다가 다가선다)
상원: 야, 안 높나?
형준: 괜찮다. 해 봐봐. 진짜 재밌다. '야' 하고 소리 지르면 하나도 안 무섭다.
(상원이는 형준이와 병민이의 도움을 얻어 천천히 바위 위로 올라섰다. 다른 친구들이 먼저 내려가고 상원이가 자세를 잡는다.)
병민: (병민이가 아래에서 외친다.) 야, 완전 재밌다. 니도 해 봐봐.
상원: (몸을 뒤로 기대고 바위를 타고 내려온다. 함성 소리는 없다)
야! 재밌네. 진짜...완전...히히
(상원이는 계속 바위를 올랐고 세 번째 부터는 내려오면서 '야'하는 고함소리가 가장 컸다)

<참여관찰, 5. 30>

위의 에피소드에서 소개된 진영이와 서우는 평소 실내에서는 얌전한 여자아이들이었다. 하지만 돌 위에서 놀기로 마음먹은 두 아이는 거침없이 양말을 벗었다. 제대로 놀기 위한 준비 같은 그 과정은 아이들이 숲에서 행동할 때 거침없고 과감해 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했다. 한편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 보여지 듯 상원이 역시 평소 소극적인 아이였지만 얼마간의 망설임 후에 거침없이 과감한 놀이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모습은 물론 친구들의 권유 혹은 자극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굳이 이런 수준의 두려움을 감내해야 할 행동을 숲이 아닌 곳에서는 시도할 필요가 없었기에 상원이에겐 큰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상원이가 계곡의 큰 바위를 타고 내려오는 미끄럼 놀이를 실행했다는 것은 그 역시 자신 안에 내재되었던 거친 놀이에 대한 본성을 그대로 표출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함성을 크게 지르며 아이들과 템포를 맞추어 내려오는 행동을 반복한 것은 자신 안의 야성을 드러내어 자유를 만끽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처럼 숲유치원에서의 생활은 아이들에게 내재된 야성성을 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이것은 숲이라는 공간이 우리의 원초적 생리와 코드가

맞아 숲에서 좀 더 즐거움과 편안함을 느끼고 보다 과감하게 자신의 본성을 내보일 수 있게 만드는 것으로 여겨졌다.

연구자는 이것을 아이들 안에 담겨져 있던 본성, 그 중에서도 야성의 발현이라고 보았다. 원래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었기에 유아들이 숲이라는 날것 그대로의 자연에서 드러내는 그들의 거침없음은 원래의 우리가 그리고 아이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어 왔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였다. 일찍이 아이들의 본성을 따르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Mason(2008)은 본래 아이들은 마음껏 소리 지르고 즐거운 함성을 지르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다. 또한 숲이라는 자연은 어른들이 거의 참지 못하는 거칠고 시끄러운 놀이를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탁월한 환경이라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숲유치원에서의 자유로운 경험은 아이들이 지닌 본성을 그들의 생활 안에서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본성의 장이 되고 있었다.

2. 심미의 장

본 연구를 위한 참여관찰 기간 동안 유아들을 관찰하며 느낀 다른 한 가지는 유아들이 숲에서 생활하며 그들의 시야에 들어오는 숲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고 나름의 방식으로 느끼고 그 느낌을 다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자료수집과정을 통해 유아들이 숲유치원 경험 안에서 보여준 그러한 모습들을 관찰하면서 그들이 숲유치원을 미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초롱반 유아들은 숲유치원 경험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순간순간 포착해 내는 심미의 장을 펼치고 있었다. 심미(審美)는 아름다움을 살펴 찾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들은 숲유치원이라는 자연의 공간 안에서 자신의 관점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냈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그 미를 느끼고 표출하였다.

연서: 선생님, 저건 뭐예요?
숲해설가: 아, 저건 졸참나무야.
연서: 선생님, 저기 저 꽃, 예뻐요. 너무 귀엽다.
숲해설가: 참 예쁘지? 그런데 저건 새순이야.
연서: 새순이요?
숲해설가: 응. 이제 막 올라오는 싹이지.
연서: 그런데요. 꽃 같아요. 정말 꽃 같이....예뻐요..
숲해설가: 그래?
연서: 아니... 꽃보다 더 예뻐요...

<참여관찰. 4. 18>

(숲길 옆 한 쪽으로 현준이와 동준이가 서서 숲해설가를 부르고 있다)
현준: 선생님 이것 봐요. 꽃 진짜 많아요.
숲해설가: 그래, 작은 쇠별꽃이네....
동준: 쇠별꽃이요?
숲해설가: (고개 끄덕임)
현준: 히히....야--반짝반짝... 별처럼....별 같다... 그치?
동준: 선생님 땅에 반짝반짝 별이 있는 것 같아요...별...

<참여관찰. 6. 12>

숲 산책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숲 안에 완전히 젖어드는 느낌을 받아요. 숲의 입구에서는 우르르 몰려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씩 거리가 생기고 각자가 무언가에 빠진 것만 같이....아이들은 꽃향기를 맡기도 하고,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구요. 요즈음엔 나뭇잎 색만 보고도 가을이 왔다느니 하면서...(웃음) 아이들은 본대로 느끼고 표현하니까요.... 아까는 문득 은진이가 선생님, 나뭇잎이 무지개(색)에요...하는 거예요.. (웃음)

<인터뷰 양교사, 9. 18>

숲유치원에서의 일상은 수없이 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진다. 그 만남은 사람과의 만남이자 온전한 자연과의 만남이다. 초롱반 유아들 역시 숲에서 움직일 때 마다 조금씩 변화하는 자연을 계속해서 만나고 또 지나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초롱반 유아들은 자신과 대면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자기 나름의 표현으로 그 느낌을 나타내고자 했다.

숲유치원의 봄이 오는 산길에서 처음으로 졸참나무를 발견한 연서는 고운 졸참나무의 새순을 발견하고 그것이 꽃처럼 예쁘다고 인식했다. 이내 숲해설가가 그것이 꽃이 아니라 새순이라 알려주었지만 이미 연서의 눈에는 그 새순이 꽃과 다름없는 그냥 고운 무엇이 되어있었다. 그저 무심히 스쳐 지날 수 있는 졸참나무의 새순을 발견하고 그 부드러운 새순의 고운 자태를 발견한 연서는 그렇게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졸참나무를 올려다보았다. 어린 연서의 눈에 그 새순의 움터오는 모습은 꽃과 비견하여 아름다움이 절대 뒤지지 않는 무엇이 되었고 그 순간 연서의 신경은 온통 새순의 아름다움에 젖어 있었다.

한편 현준이와 동준이는 초롱반에서도 개구쟁이에 속하는 남자아이들이다. 그 두 남자 친구를 한 무리의 꽃들이 걸음을 멈추게 하였다. 두 아이는 그 작고 하얀 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기 전에 이미 그 꽃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있었다. 그 때 당시 숲유치원에는 따뜻한 기운이 퍼져 숲의 어느 곳에서나 쇠별꽃이 서로 다투듯 피어나 있었다. 하늘 위 별들이 간직

한 신화처럼 쇠별꽃은 신비롭게 꽃을 피운다. 하지만 그 신비로운 쇠별꽃이라도 그걸 '별'로 볼 수 있는 사람의 눈에나 그렇게 보일 뿐이다. 대개는 손톱만큼 작은 꽃송이를 다닥다닥 달고 있는 흔한 잡초쯤으로 여겨 스쳐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준이와 동준이는 그 무심히 스칠 수 있는 아름다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쇠별꽃을 바라본 느낌을 '별처럼 반짝반짝 한다'라고 했다. 실상 부산 같은 대도시에 살면서 하늘에 별을 바라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물론 탁 트인 넓은 공간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의도적으로 바라보거나, 여유있는 마음이 아닐 경우에 별을 본다는 것은 드문 일이다. 하지만 현준이는 땅에 무리지어 피어난 쇠별꽃을 보고 별을 떠올렸다. 이것은 일면 숲해설가가 알려준 꽃의 이름에서 착안하여 떠오른 생각일 수도 있고 그 순간 그 꽃들을 보면서 자신의 관점에서 빛나고 아름다운 것을 별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경우가 어느 것이든 평소 꽃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듯한 남자 아이들이 군락을 이룬 쇠별꽃에 대한 이러한 표현을 한 것은 그들이 작은 자연의 아름다움인 쇠별꽃의 미를 발견하는 섬세한 감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관찰 기간 동안 숲유치원에서 생활하는 초롱반 유아들은 자신들만의 숲에서 긴장을 풀고 가능한 한 주변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아들에게 숲유치원에서의 경험은 탐미할 수 있는 대상이 무한한 자연의 보고이자 끝없는 심미의 장이 되고 있었다.

3. 참 놀이의 장

연구자가 숲유치원을 참여관찰 하는 동안 발견한 또 다른 한 가지는 숲에서의 유아들의 놀이에 관한 것이었다. 숲유치원의 곳곳에서 쉼 없이 아이들의 놀이는 이어지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숲유치원의 일과는 놀이로 시작하여 놀이로 끝난다고 봐도 무방했다. 가끔씩 교사와 함께 움막 짓기를 시도한다든가 혹은 나무 사이에 해먹을 연결해서 쉬는 시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유아들이 놀이에 집중했다.

이렇게 이루어진 숲유치원에서의 놀이는 교육적인 면을 강조한 의도된 놀이가 아니었다. 다만 그 놀이 자체가 갖는 유희성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숲유치원은 유아들에게 참 놀이를 돌려주는 장이 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 있어 참 놀이란 순수하게 아이들의 입장에서 자발적인 의도로 시작되어 아이들이 주도권을 잡고 진행되며 어떤 이익에 대한 계산 없이 놀이 그 자체의 즐거움에 빠질 수 있는 놀이를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과정을 통해 보여진 숲유치원에서의 유아들의 경험은 놀이에 대한 선택 기회를 아이들에게 돌려주

는 참 놀이의 장이 되고 있다고 여겨졌다. 다음의 인터뷰 내용들은 그러한 참 놀이 장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 어느 날은 저보고 그러더군요. '엄마 나 이 유치원 와서 좋아.'라고... 왜냐고 물었더니 이 유치원에서는 자기가 노는 동안 간섭을 안 한다는 거예요. 워낙 활동적이라 전에 어린이집 다니는 동안 유별나단 소리도 많이 들었었는데....이곳에선 자기 마음껏 놀아도 별 말이 없으니.. 어린 속에도 무언가 좋다는 걸 느꼈다 싶어요.....사실 그거면 됐죠 뭐. 요즈음은 어디에서든 크는 아이들의 그 넘치는 에너지를 풀 곳이 없잖아요. 하다못해 집에서도 아래층에 울릴까봐 뛰지도 못하게 키우는데...(웃음)
>
> <인터뷰 민지 엄마, 7. 11 >

> 저도 민지 엄마 말에 공감해요. 그러고 보니 애들은 자유를 사랑하나보네요....(웃음) 우리가 먼저 무언가를 제시하면서 뭘 가르쳐주면 아이들은 자기 생각은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어리다보니....하지만 제 마음만 편한 거지... 아이는 노는 것도 혼자 제대로 할 자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넘치는 에너지는 또 어쩌구요... 못 뛰어다니는 놀이만 골라 시켰으니...(웃음) 사실 저도 이런 거 잘 몰랐어요. 관심도 안 뒀었는데... 근데....얼마 전에 EBS에서 놀이의 반란이란 프로그램을 보고 충격 받았어요... 저도 딱 집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애가 원하는 방식으로 놀게 해주는 게 참 중요하더군요. 여기와서 우성이는 제 맘대로 노니까 아마 제가 여태 잘 못한 것, 좀 해소 됐을 거예요. (웃음)
>
> <인터뷰 우성 엄마, 7. 11>

3시간 동안 진행된 숲유치원 부모참관 수업이 끝나고 진행된 초롱반 유아 어머니들과의 인터뷰에서는 그 동안 숲유치원에 자녀를 보낸 경험과 부모로서의 소회가 쏟아져 나왔다. 각자 느끼는 바가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비슷한 의견도 많이 발견되었다. 비슷한 의견 중 공통된 뚜렷한 한 가지가 바로 '아이들이 숲에서 제대로 잘 놀고 온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어머니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보여준 반응이 큰 몫을 하고 있었다. 여자 아이들은 특히 집으로 돌아가 무엇을 하고 놀았고, 무엇이 좋았고, 누구 때문에 어떠하였다는 등등의 소소한 얘기까지 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의 숲유치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 그리고 대개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물론 그 중에는 1년이란 시간 동안 일주일에 이틀을 무턱대고 놀게만 하면 어쩌나 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어머니도 있었다. 하지만 담당교사들이 유치원 사이트를 통해 전해주는 숲

에서의 활동사진들과 이야기를 보고 들으며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하고 있다는 점에 비중을 두어 그 마음을 덮기도 했다고도 하였다.

민지 엄마의 말처럼 민지는 활동적이어서 이전에 다녔던 어린이집에서는 지적도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민지가 숲유치원에 오게 되면서부터 과하게 느껴졌던 자신의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할 수 있었고 실내보다 제약이 없으니 스스로 자유로움을 느끼며 잘 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만족감이 쌓이다보니 스스로 숲유치원으로 등원하게 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어머니에게 표현한 것으로 보였다.

우성이 엄마의 경우에는 아이에게 해주고 싶었던 게 많아 지역문화센터도 다니고 이것저것 많이 시켜왔다고 했다. 그런데 그것이 돌이켜 보건데 엄마 만족이었을 뿐 우성이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선택권을 빼앗은 일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또한 자신이 앞서서 이끈 놀이 방식이 우성이 입장에선 그릇된 방식이었을 거라는 자신의 인식을 나타내었다. 우성이 어머니는 우성이가 숲에서 자유롭게 제대로 놀고 옴으로 인해 부족한 자신과의 놀이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그것은 아마 그 자리의 다른 어머니들의 바람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한편 숲에서 보여진 유아들의 놀이 경험과 연관하여 언급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는 숲에서 각자의 참 놀이에 깊이 몰입한 유아들이 보여준 시간에 대한 느낌의 표현들이었다.

> 선생님, 벌써 끝나요?
> 안돼요... 조금만 더 있어요. 예?
>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요(빨리 가요?)
> 어, 벌써 밥 먹어야 돼요?
> 아닌데, 금방 했는데... 벌써 시간...다 됐어요?
>
> <참여관찰 자료 중 발췌>

> 아이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제가 다가가 식사 시간이 되었다거나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했다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애들이 너무나 자기만의 놀이에 집중해서...뭐랄까... 말 붙이기 힘든 상태 있잖아요?(웃음) 어린 아이들이지만 너무 진지하고 장시간 큰 움직임 없이 자기 것에 열중할 때는...정말 시간 가는 줄 도 모르더라구요....
>
> <인터뷰 양교사, 9. 4>

숲유치원 관찰 기간 동안 연구자는 유아들이 자신의 놀이가 멈추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마다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을 빈번히 발견했다. 실상 실내 공간에서는 하루 일정이 계획된 활동 별로 나누어져 있어 개개인의 활동 시간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올 여지 자체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숲유치원에서 자유롭게 자신만의 활동에 흠뻑 빠진 아이들의 시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시간과는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다. 숲유치원이라는 공간에서 계획된 시간이 아닌 자신들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활용하는 초롱반 유아들은 분절된 시간의 해체에 따른 선물인 충분한 몰입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요컨대 초롱반 유아들은 숲유치원에서 자신이 놀이의 선택권을 가진 참 놀이를 통해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고 있었으며 놀이 자체에 깊이 몰입하고 있었다. 또한 그러한 과정이 지금까지 왜곡되고 충분하지 못했던 참 놀이를 회복시켜가는 과정이 되고 있었다. 이처럼 숲유치원에서의 경험은 유아들에게 자유롭게 자신이 선택한 놀이에 깊이 몰입할 수 있는 참 놀이의 장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숲유치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숲유치원에서의 유아들의 경험 세계의 의미를 살펴 그 안에 내재된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숲유치원 유아들의 삶의 경험 세계 안으로 직접 들어가 유아들의 경험의 의미를 살피고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숲유치원에서의 유아의 경험 세계를 본성의 장, 심미의 장, 참 놀이의 장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적 함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들의 일과 시간에 대한 문제이다. 이것은 유아교육기관에서 나타나는 계획안에 따라 분절된 하루 일과 및 놀이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본성의 장에서 보여진 유아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타고난 본성 그대로를 발현해 내보이는 과정은 숲유치원의 자유로운 일과시간에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적응하면서 보다 많이 관찰된 모습들이었다. 또한 참놀이의 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유아들은 자신들의 놀이에 흠뻑 빠져있을 때는 시간의 흐름조차 잊고 막상 정리해야 할 시간이 왔을 때엔 여지없이 부족하게 여겨지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모습들은 모두 유아들의 일과 시간이 좀 더 여유롭게 계획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 현장에서 유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흥미로운 주제에 몰입을 시작할 즈음 교사에 의해 계획되었던 활동 시간이 끝났기에 자신의 활동을 멈추어야 하는 것을 받아

들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추수진, 2008). 하지만 여유로운 시간, 충분히 비어있는 시간이 있어야 아이들 관점에서의 참 놀이와 깊은 몰입이 가능할 수 있다. 본 연구과정을 통해 지켜본 숲유치원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구분이나 분절 없이 자유롭게 진행되었다. 자기만의 활동에 몰입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유아들에게 있어 시간은 각자가 느끼는 만큼만 빨리 혹은 느리게 흐르고 있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관찰된 유아들은 숲유치원의 분절되지 않은 여유로운 시간 운영을 통하여 시간의 흐름을 잊고 놀이에 깊이 몰입하고 사물과 교감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재개념주의자들은 학습자가 시간에 맞춰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학습자들에게 맞춰질 때 교육에 있어 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Mara, 1992). 즉 일정한 또는 고정된 순서로 계획된 분절된 시간운영을 해체하고 학습자의 요구에 맞게 적절하게 시간을 재구성, 운영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유아들의 활동 리듬과 괴리가 있는 선형적인 일과 시간표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유아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활동에 빠져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배려가 유아교육 현장에 요구된다. 이러한 고민의 대안으로 시간의 해체를 통해 융통성 있게 일과를 진행하는 숲유치원이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 유아들의 경험에 있어 주요 환경인 활동 공간에 대한 문제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오늘날 실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유아들의 활동 공간을 보다 확장시켜 주어야 할 필요성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의 심미의 장에서 나타난 유아들의 모습은 숲유치원 공간이 자연의 흐름에 따라 쉴 새 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그 안에 젖어든 유아들이 넓고 구분이 없는 자연 환경을 만끽하는 기회를 가짐으로 인해 보여진 모습들이었다. 숲이라는 공간 즉, 생활하는 공간 자체가 생기 있고 자유로우니 만큼 유아들의 감각이 무한대로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확장되고 자유로운 자연 공간의 제공이 유아들에게 자연스럽게 미를 모방, 재연해 보고 그에 따른 결과물을 소중히 여기는 미적 행동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양옥승(2002)은 오늘날 유아교육기관에서 공간이라는 개념은 유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확장시키는 공간의 개념으로 인식되기보다 성인에 의한 규제를 경험하는 곳이 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로인해 유아들을 제한하는 공간의 해체를 언급하며 교실 공간 이외에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주변 공간을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황윤세, 양옥승, 2002). 즉 유아들의 활동 공간이 교실 안이어야만 한다는 공간 개념의 경계를 넘어 실외로 다양하게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Leavitte(1994)는 유아교육기관의 흥미영역이 지나치게 세분

화 되어있고 교구장이나 책상으로 유아들의 동선을 지나치게 통제한 환경을 지적하였다. 유아들의 활동 공간이 지나치게 구조화되어 있거나 부딪힘이 많다면 교사가 수시로 문제 상황을 중재하거나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숲유치원의 개방된 환경은 현재의 유아교육기관 공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보여진다.

셋째, 성인이 아닌 유아의 관점에서 진정한 놀이 및 놀이감의 의미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은 숲유치원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만의 놀이에 깊이 빠져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연구 결과에서 보여지 듯 숲이 지닌 무한한 자연물과 생명체들, 그리고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외적 변화 안에서 유아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같은 숲에 존재하고 있지만 매번 다르게 느끼며 자신들만의 놀이 아이디어를 계속적으로 변형시켜나가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 기간 동안 관찰한 유아들을 담당한 교사와 숲해설가는 유아들의 놀이에 거의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대개의 경우 주변에서 관찰하고 있다가 유아들이 먼저 도움을 요청하거나 질문을 할 때 도움을 제공하면서 성인인 자신들의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바로 이러한 최소의 개입의 결과로 유아의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가 자유롭고 즐겁게 놀고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인터뷰를 통해 밝힐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유아들이 느끼는 진정한 놀이, 즉 참 놀이는 성인들이 인식한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아직까지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들의 놀이는 많은 경우 교육의 통로로 인식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아래 유아의 놀이에 성인이 개입하여 놀이의 주도권을 잡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대그룹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그들의 행동반경을 제한하고 할 수 있는 활동 내용을 제안해 주었다. 그런 과정에서 놀이의 선택권은 아이들이 아닌 교사에게 돌아갔다. 놀이의 주도권이 성인에게 가버리면 아이들 삶에서 가장 중요한 놀이의 본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즉 가장 자유로워야 할 활동이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되고 재미있게 놀아야 할 놀이가 눈치를 살피며 부담을 느끼는 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관점에서 놀이가 참 놀이가 되자면 놀이의 주도권은 유아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과정에서 보여진 유아들의 깊은 몰입의 장면 및 진정한 기쁨의 시간은 유아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자유로운 자연의 공간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가운데 발견된 것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숲으로 등원하는 유아들을 위해 기본적으로는 개별 유아교육기관의 상황을 고려하되 숲유치원 운영횟수를 보다 증가시키고 유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있어서의 제한점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에 위치한 한 유치원의 1개반 만5세아들을 연구 참여자로 진행한 질적 연구로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숲유치원의 상황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숲유치원에 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 한층 보완된 연구방법에 입각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숲유치원이 증가하는 현 추세에서 유아들의 교육환경이 현재의 지나치게 구조화되고 시간을 분절화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유아들의 행복 추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대안적 모색으로 숲유치원의 활성화를 제안하며, 이러한 대안적 모색을 통해 유아교육과정 안에서 다양한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강명희(2012). 숲유치원 활동에 대한 사례연구: 유림어린이집 숲 체험 활동 사례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강원도민일보(2012. 1. 12). 숲유치원이 온다. http://www.kado.net/ (출력일 2012년 1월 12일).

김은숙(2011). 한국 숲유치원 교육의 실제. (사)숲유치원협회 2011년도 원장연수자료집, 113-123, 2월 8일. 대전: 대전 만인산 푸른 학습원.

나성식(2004). John Dewey 교육론의 유아교육적 함의.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류덕연(2011). 숲 체험활동 및 연계활동을 통한 유아의 경험적 변화에 대한 의미.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손원경, 전주영(2011). 자연친화적 실외 환경 놀이에서의 영아의 경험 세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3), 143-164.

송주은(2011). 숲유치원에 대한 유아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및 요구도 조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양옥승(2002). 유아교육과정의 재개념화: 포스트모더니즘적 관점에서 유치원의 자유놀이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 연구, 20**(1), 55-73.

양은주(2002). 듀이 예술철학을 통해 본 교육적 경험의 의미. **교육과정평가연구, 3**(1), 47-62.

오소영(2010). 숲유치원에서의 문학 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오희천(2012). **하이데거 존재의 의미**. 서울 : 종문화사.

유혜령(1998). 교수매체 환경과 유아의 경험양식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18**(1), 131-152.

이명환(2008). 독일의 숲유치원. **숲과 문화, 17**(1), 74-87.

_____(2009). 숲유치원 국내 도입의 문제점 및 전망. 녹색희망 숲유치원. 숲유치원 국제세미나 자료집.

이성자(2010). 숲유치원 운영 사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인원, 최기영(2007). 자유 숲놀이에 나타난 유아놀이 경험. **열린유아교육연구, 12**(2), 273-301.

임재택, 이소영, 김은주(2012). 숲유치원 운영실태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11**(2), 57-85.

장희정(2009). 국내 숲유치원 교육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숲과 유아교육, 18**(3), 23-29.

조규성(2010). 아이들은 숲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숲에 대한 아이들의 기억에 관한 질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조형숙, 김현주, 박은주, 김민정(2005). 유아교사의 자연친화 교육활동 경험의 의미탐색. **유아교육학논집, 9**(1), 157-178.

주소영(2009). **아이들의 놀이터, 자연을 돌려주자. 숲 · 마음 · 행동.** 서울 : 숲과 문화.

중앙일보(2011. 11. 14). 숲유치원 활성화 단계. http://joongang.joinsmsn.com/ (출력일 2011년 11월 15일).

최정애(2009). 숲체험 활동이 유아의 환경에 대한 태도와 과학적 탐구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추수진(2008). 유치원 자유선택활동에서의 놀이의 자유.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유미(2010). 숲유치원의 해외 동향 및 국내 도입 과제.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60**, 1-18.

홍은주(2003). 자연환경구성활동의 교육적 의미 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홍혜란(2001). 숲체험교육의 사례. 환경연합국제협력위원회 편. 사회 환경 교육의 현황과 전망. 제4차 국제환경 심포지엄 자료집.

황윤세, 양옥승(2002).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함의. **열린유아교육연구, 7**(2), 335-355.

Bogdan, R. & Biklen, S. K. (2010). **교육의 질적 연구 방법론**(조정수 옮김). 서울 : 경문사(원판 2007).

Leavitte, R. L. (1994). *Power and emotion in Infant-toddler day care*.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Malaguzzi, L. (1996). **어린이들의 수많은 언어**(오문자, 김희진, 박은혜 옮김). 서울: 다음세대.

Mara, S. S.(1992). **유아교육 과정의 재개념화**(신옥순, 염지숙 역). 서울 : 창지사(원판 1992).

Mason, C.(2008). *Home education: The Original Home Schooling Series By Charlotte Mason*. United States of America: Wilder Publications.

Merriam, E. (1994). *Observation, Description, Analysis*. NY : University of Columbia Press.

Spradley, J. P. (1988).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법**(이희봉 옮김.). 서울: 대한교과서(원판 1980).
Wilson, E. (2010). **바이오 필리아**(안소연 옮김). 서울 : 사이언스 북스(원판 1986).
Wilson, E. (2011). **인간 본성에 대하여**(이한음 옮김). 서울 : 사이언스 북스(원판 2004).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have a more perfect understanding of forest kindergartens, to examine educational values important for the actualization of forest kindergarten education and to suggest some of the right directions for forest kindergartens. To serve the purpose, it was necessary to conduct qualitative research to closely observe the experiences of preschoolers in a forest kindergarten and grasp the meaning of their experiences. As a result, it has been found that the world of experiences among the preschoolers in the forest kindergarten consisted of the following three fields: The first was the field of real nature. The preschoolers found their own nature in the forest kindergarten. The second was the field of aesthetics. The preschoolers acquired aesthetic experiences in the forest kindergarten. And the last was the field of genuine play. The findings of the study had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education: First, it's important to provide enough time to preschoolers. Second, it's important to reconsider the meaning of preschooler's activity spaces. Third, it's important to see the meaning of genuine play and things to play with in a new light. The findings of the study show that a forest kindergarten could serve as a meaningful space to provide happiness for preschoolers.

▶*Key Words : forest kindergarten, children, experience world*

논 문 투 고 2013. 08. 15.
수정원고접수 2013. 10. 04.
최종게재결정 2013. 10. 20.